

마카오와 대만에서 받은 인상

김성권 / 대한결핵협회 관리부장

■ 마카오 ■

호텔을 출발한 우리는 빅토리아 항에서 마카오 관광을 위한 간단한 수속을 마친 후 원속분사선으로 65km 거리에 있는 마카오 항으로 출발하였다.

이 분사선은 리스보아 도박장 사장(스텐리 호)이 16대를 구입(전 세계적으로 20대)하여 주로 도박사들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다는데 가격은 대당 60억으로 시속 120km로 물 위를 떠서 달린다. 마카오까지 배삐는 20US\$였다.

세계에서 강폭이 제일 넓은 주장(폭 60km) 하구에 이르니 파도는 잔잔하여 호수와 같으나 물 색깔은 청색에서 녹색으로 마카오가 가까워질수록 황색으로 변했다.

강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황토물은 마카오에 와서 가라앉는데 이 섬의 면적을 5km나 넓혀주어 지금은 17km가 되었다고 한다. 마카오는 사회주의 체제로서 광둥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도 포르투갈의 식민지이다.

1999년 12월 21일에 중국에 반환되고

그 후 50년간을 자치토록 되어 있다고 한다. 반도부(Maccao)와 타타 섬과 콜로아 네 섬으로 되어 있는데 반도부 이외 두 섬은 미개척지로 남아 있어 아직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구는 55만 명이고, 모든 아파트는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복합건물로서 원료를 수입하여 주로 청바지, 장난감, 보석 등을 중국 사람들의 놀라운 손재주로 생산, 가공하고 있다.

다음은 국경선에 가보았으나 중국의 문화혁명(1964~1974) 당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에 나간 사람이 2만 5천여 명이 되는데 지금은 사상을 묻지 않고 본국에 다녀갈 수 있도록 완화되어 귀향증을 가지고 넘나들고 있었다.

마카오와 중공의 국경선에서 포르투갈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생각했다.

다음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 상을 모셔둔 폐남 성당을 가보았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마카오에서 제일 유명한 성 폴 성당에서 기도나 드렸으면 했는데 성당 입구의 도로공사로 출입이

어렵다 하여 이곳을 찾게 되었다. 이 성당은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날(1917. 5. 13.)을 기념코자 세웠는데 매년 5월 12일에만 미사가 있고 평일에는 관광객을 위하여 개방하고 있었다.

웅대하다거나 매우 아름답지는 않지만 전등 하나 없어도 낮에는 조명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마이크가 없어도 경내 어디에서나 제단에서의 강론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아담한 성당이다.

성모마리아 상은 16세기에 도자기로 원색 제작되었는데 아름답기 그지 없다. 발 밑에는 황금의 문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계적으로 4권뿐인 라틴어 성서가 1권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점심은 리스보아 호텔에서 포르투갈 음식으로 하고 리스보아 도박장에 들어가 10달러어치 동전을 교환하여 말로만 들던 빠찌고를 하였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카오 도박장에서 10달러를 잃었다는 추억을 만들었다. 이 도박장의 사장은 스텐리 호(71세)인데 세 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가 4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모임 때에는 이름표를 달고 나오는데도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대혼잡이 일어난다. 도박장 근처에는 팔바 대교가 있는데 이 다리를 이곳에서는 자살대교라 한다.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전당포에서 받은 돈 다 날리고, 여권까지 팔아서 모두 툭툭 털 다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이 다리 위에서 몸을 던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남 못할 일로써 많은 돈을 번 그는 악명도 대단히 높다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많은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기가 태반이란다.

■ 대 만 ■

홍콩을 이륙하여 1시간만에 타이페이 국제 공항에 도착하니 안내원이 나와 있었다. 한국교포로서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언어 구사가 좀 서툰 듯하다.

국제대만점(United Hotel)에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를 이화원이란 한국 음식점에서 불고기로 하였는데 깨끗하고 친절하며 음식맛도 좋았다.

대만을 여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곳의 물은 석회수이므로 식수를 조심하고, 도로에서는 오토바이를 조심해야 하며, 식당의 불친절, 특히 한국사람은 빨리빨리를 원하는데 이들은 급할 것이 없다.

그리고 차량이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며 호텔시설의 낙후 등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안내양은 열심히 설명한다.

대만은 79개의 섬으로 된 3만 6천km²의 면적으로 인구는 2천만 명이 채 못 된다. 절반 이상이 산악지대로서 남북으로 중앙산맥이 뻗어 있는데 3,000m 이상의 높은 산이 133개나 된다. 기후는 북쪽은 아열대이고 남쪽은 열대에 속한다.

오늘은 대만에서의 첫 아침이라 혹시나 하고 창을 여니 여전히 비. 아침을 호텔에서 중국식 뷔페로 했는데 음식향이

속을 울렁거리게 한다. 날씨와 겹쳐서 짜증이 슬며시 치밀어 온다.

오전 8시 30분에 대만 방로협회로 출발 예정이었으나 30여 분이 지났는데도 버스는 보이지 않는다. 안내양은 핸드폰만 못 살게 굴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도 옆에 보도가 있고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곳의 차도 옆 보도에는 오토바이를 두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아래층 1칸 폭은 인도를 만들어 놓아 사람들이 더위와 비를 피하면서 걸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기다리는 버스는 9시 45분경에 도착, 그러나 일행 누구도 늦은 이유를 묻지도, 짜증도 내지 않는다. 어느 새 대만식으로 변해 가는 것인지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방로협회를 방문하고 타이페이에서 가까운 타이알 족이 살고 있는 우라이(烏來)를 찾았다. 계곡을 올라간 관광버스가 주차장에 다다르니 비가 세차게 내린다. 여기에서 다시 택시로 가무장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도착하고 좀 있으니 가무가 시작되었다.

가무는 타이알 족의 전통무용과 노래가 열 가지 공연되는데 리듬이 경쾌하고 울동이 가벼워 기분을 유쾌하게 이끈다. 가무하는 사람은 40여 명으로 연령은 40~50세라고 하는데 체격이 작고 화장을 짙게 하고 행동이 경쾌해서 그런지 나이가 찍이나 적게 보였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영어와 한국어로 다음을 소개하고 있었으며 공연 안내서도 우리말로 되어 있기도 하였다.

가무 극장을 나와 기념품 판매점이 양쪽에 늘어서서 통로를 나오니 “백사폭포”가 눈에 들어온다. 80m가 넘는다는데 대만에서 최대로서 타이알 족 여인과 기념촬영을 하는 곳이라 한다.

폭포 위로는 “운선낙원”이 있다는데 케이블 카가 설치되어 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 알갭게 생각하면서 운선낙원 그 너머를 바라보니 신비스럽게 보이는 운무 속에서 신선이라도 나타날 듯했다.

대북의 교통사정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였다. 공항에서 대북까지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건설업자가 건설하였는데 완벽한 시공으로 우리의 기술을 과시한 바 있다며 지금 다시 프랑스 건설회사에서 고속도로를 한창 건설하고 있는데 작년 8월 준공에 앞서 시운행하다가 도로가 무너져 재시공중인데 언제나 될지 답답하다고 한다. 그리고 시내는 지하철 공사로 차량 소통이 어렵다.

자동차는 인구 4명당 1대, 오토바이는 2명당 1대이며 거리에는 벤츠 등 고급차도 많은데 잦은 비 때문에 세차를 잘 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오토바이 행렬과 어우러져 도로는 무질서 그대롭다.

소형차를 선호한다는데 기아의 프라이드가 눈에 자주 띄었다. 세차장을 보기가 극히 힘들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복덕방, 교회, 다방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다음은 퇴역장교들이 마련한 7만 8천 평의 대지에 화교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높이가 70m인 총정 기념관을 둘러 보았다. 분당에는 장개석 동상이 있는데 북경

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 고궁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타이페이 근교 쌍계 계곡 경치가 매우 수려한 산 기슭에 1965년에 세워진 이 박물관의 소장품은 과거 천여 년 동안 송, 원, 명, 청나라 때 궁궐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을 주로 하고 있으나 지금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기증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70만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중화민국 14년(1925년)에 고궁박물관을 설립하였는데 근대에 대일항전과 중공의 반란으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1948년에 대만으로 옮겨 왔다고 한다.

다음날 우리는 바다속에 돌출된 바위가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생겼다는, 여성의 가슴모양을 한 기암을 비롯하여 애인바위, 미인바위 등의 이름이 붙여진 수많은 바위가 있는 야류해상 공원을 둘러보고 해변을 따라 한참 달리다가 일반인에게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금보산 국영학원(金寶山 國榮學園)에 들렀는데 이곳은 공동묘지였다.

대만 사람의 묘는 5~10평의 규모로서 석재로 지붕까지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죽어서 편안하게 있어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현재에서는 누추하게 살더라도 묘만 화려하게 하려고 한다.

이 공동묘지는 부자들이 제단을 만들어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의 유명한 조각자들의 작품 수천 점을 언덕에 배치하여 놓아서 이를 감상하며 인생을 깊이 생각하여 보았다.

이곳을 둘러나오다 일월농장(日月農莊)이란 유향온천에 들러 목욕을 하고 분화구를 찾았다. 구름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으나 유향증기가 솟구치고 있었고 가까운 곳에서는 용암이 아직도 움직이는지 뽀글뽀글하는 소리가 들렸다.

타이페이 시내에 들어와서 대일항전에서 전사한 20만여 명의 영령을 모신 충열사와 1738년에 건축한 호화찬란한 용신사 그리고 야시장을 구경하였다.

이번 여행중에 안내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하였다가 여기에 옮겨 보았는데 지명(地名) 등 확인을 못하여 사실과 다름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지만 여행에 있어서도 사전에 그 나라의 역사, 지리, 기후, 교통, 정치, 언어, 숙박 등의 여행정보를 입수, 빈틈없는 일정을 마련하고 미리 다녀온 선각자로부터 많은 경험담을 들어 두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런 점에서 미흡하였다.

그리고 문명시대에 사는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할 많은 사항들을 몸에 익히는 데 노력해야겠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과감히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여행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꼈다.

금번에 20명이 3개국을 연수 여행하였는데 몇 그룹으로 나뉘서 한 그룹에 한 사람씩만 기간을 단축하여 심층 연수한 후 귀국하여 그룹이 모여 연수 성과 토론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